2024년 북한의 대외 경제 평가와 향후 전망: 중·북 무역과 러·북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김규철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kyoochul@kdi.re.kr

Ⅰ. 서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2016년과 2017년에 집중되었다. 대북제재로 북한의 대외무역이 타격을 입은 지 벌써 8년이 넘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대북제재는 상수가 되어가고 있다. 제재가 본격화된 지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이후 2년 넘는 기간 동안 북한은 육로 국경을 차단하며 대외교역 규모가 크게 위축된 바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철도 화물 운송이 재개되며 무역이 다시 회복되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북한의 대중 교역은 2023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수입이 감소하며, 전체 교역액은 일부 감소하였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광물과 임가공 상품으로, 이는 국경 봉쇄가 해제된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4년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에는 일부 변화가 감지된다. 북한의 산업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의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소비재 수입은 품목에 따라 줄어든 경우가 있었다.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쌀 등 식량 작물과 설탕, 담배 등 소비재였으며, 해당 품목들은 국산화 혹은 러시아로부터의 도입으로 대체될 수 있는 상품이다.

20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외 경제는 곧 대중 무역이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부터 러·북 밀착이라는 요인이 북한의 대외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장기화된 전쟁으로 무기 등 군수물자가 부족해진 러시아는 북한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고, 이러한 움직임이 외부에 포착되기 시작한 것이 2023년 하반기부터이다. 2023년까지만 해도 소문에 머물러있던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2024년에는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났다. 인공위성 사진 등 간접적인 증거에 근거한 추정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무기 등 북한산 군수물자가 러시아에 전달됐으며,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서 죽거나 다쳤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위반하며 석유제품을 북한에 공급했다는 증거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2023년까지만 해도 실체가 모호했던 러시아 요인이 2024년에는 북한의 대외 경제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2024년 북한의 대러 교역규모가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더라도 대중 교역규모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러 교역의 증가분이 대중 교역이 일부 감소한 규모를 일정 부분 상쇄시켰을 것으로 보여, 2024년 북한의 전반적인 교역규모는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국경 봉쇄 이후 북한 당국이 추진해 온 '국가 통제 강화'의 모습이 2024년 대외 경제 분야에서도 확인되었다. 무역회사가 거래 품목과 금액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등 국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무역법에 근거하여 대외교역의 상당 부분이 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경 개방 이후 활성화된 비공식 무역도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에 돈주나 지방의 무역회사에 주어졌던 대외교역의 자율적인 공간이 대폭 축소되고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다. 이는 코로나19 국경 봉쇄 이후 돈표 발행, 시장에서의 외화 사용 금지, 비정상적인 환율의 움직임 등 당국이 북한 주민이 보유한 외화를 흡수하려는 시도와 유사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24년 북한의 대외 경제를 평가하고 향후의 상황을 전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북 무역에 집중한 기존의 방식 외에 러·북 경제협력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과 중국의 공식 무역 상황은 중국 해관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2024년 북한의 대중 무역의 규모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는지 혹은 감소하였는지를 개괄하고, 주요 품목별 특징을 분석하여 중·북 무역을 통해 북한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려 시도하였다. 북한과 중국의 비공식 무역과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 등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은 무역통계 등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본다.

Ⅱ. 2024년 중·북 무역 분석

1. 중·북 무역 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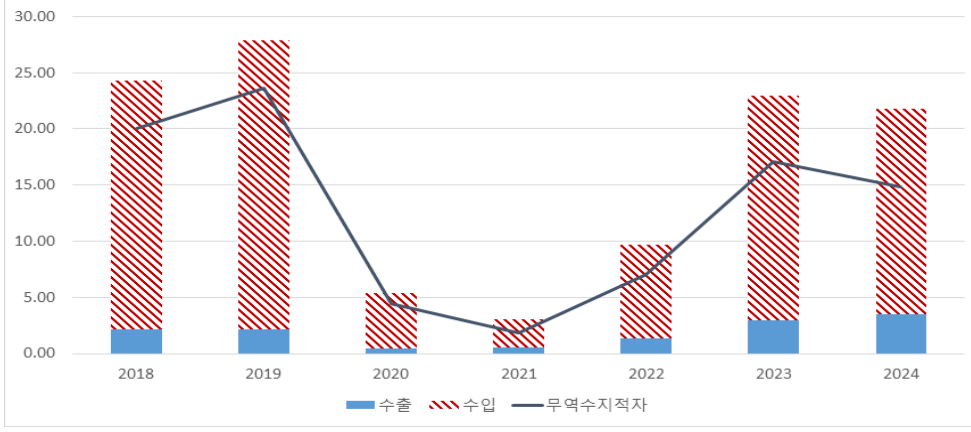
[그림 1]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액, 수입액,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보여준다. 해당 시기를 코로나19 이전 시기(2018~19년), 코로나19 국경 봉쇄기(2020~22년), 코로나19 이후 회복기(2023~24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제재의 영향을 받은 2018, 2019년 북한의 연간 대중 무역액의 평균치는 26.1억달러였으나, 코로나19 국경 봉쇄기(2020~22년)의 해당 수치의 평균값은 6.0억달러로 77%나 감소하였다. 그 중 2021년의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은 3.0억달러로 김정은 집권 이후 최소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2022년 8월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선전하며 육상 무역을 재개한 이후 대중국 교역액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2023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은 22.9억달러(수출 2.9억달러, 수입 20.0억달러)로 코로나19 이전 시기(2018~19년 연평균)의 88%에 달해 중·북 무역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3.5억달러, 대중 수입은 18.3억달러, 총액은 21.8억달러로, 전년 대비 수출은 19% 증가한 반면, 수입은 8%, 총액은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코로나19 이전(2018~19년)인 2.1억달러를 크게 상회한 반면, 대중국 수입은

[그림 1] 북한의 대중 수출, 수입 및 무역수지 적자

(단위: 억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접속일: 2025. 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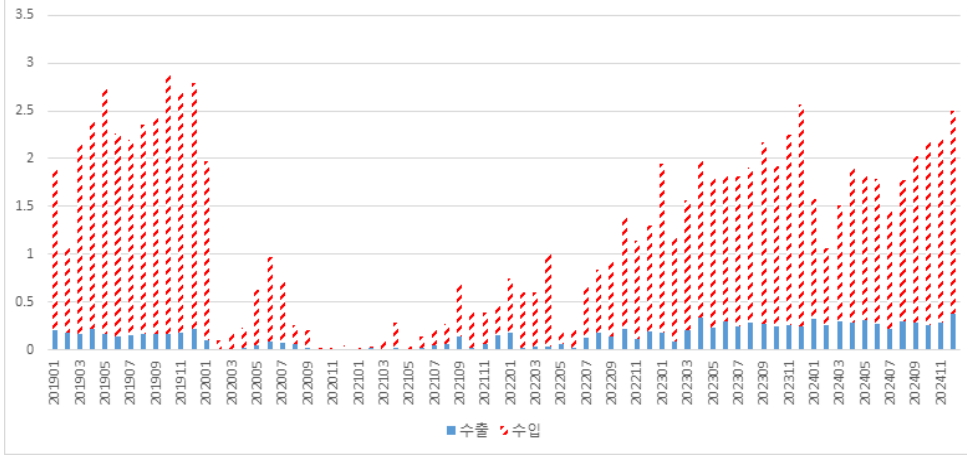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2024년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14.9억달러로, 2023년의 17.1억달러에 비해 줄어들었다. 2024년의 대중 수입이 2023년보다 줄어든 것에 기인하며,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의 외화 상황이 만만치 않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외화 획득의 통로인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증가했으나, 북한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중국 수입이 줄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북한의 경제 상황이 여전히 순탄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의 대중 교역액이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8~19년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경제의 회복세가 주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2024년에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이에 따른 북한의 군수무기 지원 및 북한군 파병, 이에 따른 러시아의 반대급부(에너지·식량) 제공 등 중·북 무역 외에도 북한의 대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사건들도 존재하였다.[1] 그러므로 중·북 무역이 2024년 북한의 대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의 대러 교역규모가 대중 교역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북 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절대적이며, 최근 중·북 무역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침체된 것은 북한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월별 중·북 무역 추이를 제시한다. 국경 봉쇄로

[그림 2] 북한의 월별 대중 수출액, 수입액

(단위: 억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접속일: 2025. 1. 21).

1) 이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Ⅲ. 북한-러시아 경제협력에서 논의한다.

2020년 2월부터 급감한 중・북 무역이 2022년 하반기에 반전되어 2023년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2024년 상반기에는 회복세가 주춤하였다. 2024년 하반기 이후 다시 무역규모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의 중・북 무역 침체가 최근 러・북 밀착에 따른 중・북 관계 악화 때문이었는지, 하반기의 무역 회복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이후 무역법을 개정하며 국가의 통제를 강화했으며, 2022년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가 유일무역제도'로 회귀하는 내용이 제시되기도 했다.[2] 이러한 기조는 최근까지도 지속・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 경제성의 통제하에 국가가 무역을 주관하는 방향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고 난 뒤 기존의 무역회사가 반사회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다는 북한 내부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다.[3] 또한 중국에서 파견되어 일하던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게 물건 대신 외화를 가지고 귀국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소식[4]도 전해졌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북한 당국이 무역부문에서 외화 획득을 극대화하고 외화 유출을 통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4년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지방발전 20×10 정책' 역시 대외교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챙겨 대내외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주요 내용은 지방에 경공업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해당 정책과 관련한 무역일 경우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도 제공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기도 했다. '지방발전 20×10 정책'과 관련된 지방 무역회사의 수입에는 일부 자율권이 생겼으나, 수출은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무역회사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다.[5] 이처럼 주요한 외화 확보 수단인 수출은 여전히 중앙이 틀어쥐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외화에 대한 관심은 지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무역 외에도 외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경제정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북한의 외화 보유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당국은 외화 확보를 위한 밀수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에 해당하는 석탄과 철광석 등의 수출을 확대하라는 내각의 지시가 있었으며,[6] 국경 해제 이후 밀수는 이전과 달리 국가 주도로 북한 당국이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공식 세관을 통해서는 제재 품목이 거래되기 어렵기 때문에 밀수 형태로 제재 품목이 거래되고 세관

2) 『연합뉴스』, 「'김정은표 무역자율화→중앙통제' 유턴…자력갱생 국가 주도로」, 2022. 2. 8.
3) 『아시아프레스』, 「<북한내부> 무역회사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 (2) '개인 소유물처럼 변질'됐다며 부패 비판 무역회사와 시장을 철저히 차단」, 2024. 3. 19.
4) 『rfa』, 「북, 중국 내 노동자에 "외화 갖고 귀국하라"」, 2024. 10. 15.
5) 『데일리NK』, 「[지방발전 정책 그 후②] 지방 무역 늘리면서 통제는 더 세게」, 2024. 6. 25.
6) 『데일리NK』, 「北, 대북제재에도 아랑곳 않고 "광물 수출 확대하라" 지시」, 2024. 8. 5.

직원과 보위부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보는 등 국가의 통제하에 밀수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7] 밀수로 북한이 도입하는 상품은 자동차와 기계 설비 등 이고, 밀수출하는 품목은 철광석과 수산물 등으로 제재로 거래가 금지되는 상품이다.[8] 국경 봉쇄가 해제된 이후 북한과 중국 간에 밀수가 재개된 것으로 보여 세관을 통한 공식 무역 데이터가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고 중·북 무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상품별 분석

가. 북한의 대중 수출품

2024년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 상품을 분류해 보면 중국으로부터 재료를 들여와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한 임가공 제품(‘가발, 가수염’,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 등)과 제재와는 무관한 광물(‘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기타 상품(‘전기 에너지’, ‘합금철’) 등이다. 이는 2023년의 주요 수출품과 완전히 동일하며, 국경 봉쇄 해제 이후 외화 획득을 위한 주요 수출품이 고정되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해당 품목의 수출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표 1〉은 주요 수출 상품의 2024년 수출액과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 해당 상품의 2019년과 2023년 수출액 대비 2024년의 수출액 비율을 보여준다.

〈표 1〉 2024년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출 상품

순위	HS code	품목	2024년 수출액(비중)	2023년 대비 2024년 수출액 비율	2019년 대비 2024년 수출액 비율
1	6704	가발, 가수염 등	1억 8,778만달러(53.9%)	113%	604%
2	2611	텅스텐광과 그 정광	3,140만달러(9.0%)	121%	255%
3	2716	전기 에너지	2,220만달러(6.4%)	100%	194%
4	7202	합금철	2,087만달러(6.0%)	65%	67%
5	9108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	1,628만달러(4.7%)	401%	33%
6	2613	몰디브덴광과 그 정광	1,511만달러(4.3%)	211%	169%
7	9804	간소화된 세관통과 물품 중 저가제품	984만달러(2.8%)	49165%	141%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접속일: 2025. 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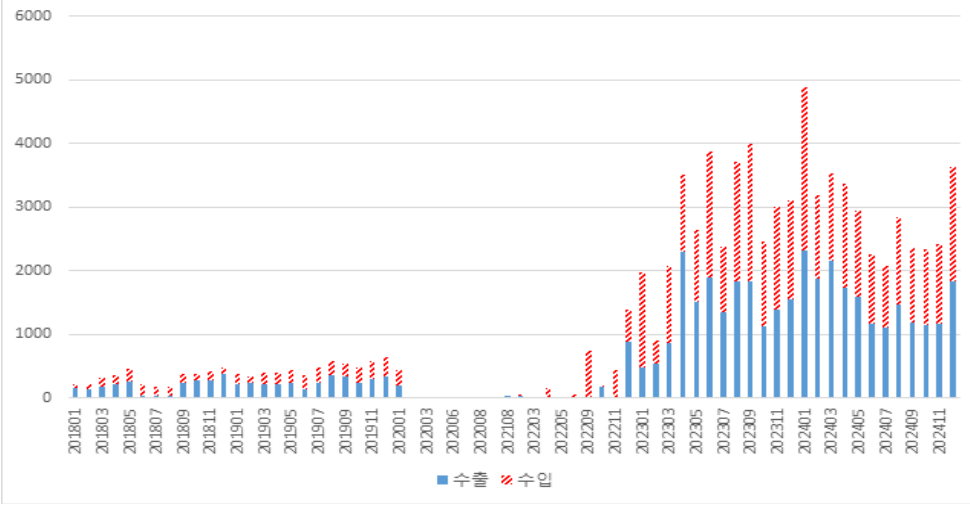
7) 『rfa』, 「북중 국경무역 제재 피하려 ‘밀수’로」, 2024. 11. 18.
8) 『아시아프레스』, 「<내부 인터뷰>북한 국가 밀수의 현황을 물었다 국경 밀무역 급격히 확대, 거래품 중 유엔 제재 품목 대거 포함」, 2024. 5. 31.

북한의 대중국 최대 수출 상품은 '가발, 가수염(HS 6704)'으로 전체 수출액의 53.9%인 1억 8,778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해당 상품은 전형적인 임가공 상품으로 중국으로부터 '사람 머리카락(HS 6703)'을 수입하여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발, 가수염(HS 6704)'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은 '사람 머리카락'의 수입과 '가발, 가수염'의 수출의 월별 추세를 보여준다. 2018~19년까지만 해도 해당 제품의 교역규모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이후 수입액과 수출액이 많이 증가하여 2023년 이후 북한의 최대 수출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24년 수출액은 2023년 수출액 대비 113%로 나타났으나, 2019년 수출액 대비 604%로 나타나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이후 해당 제품의 수출액이 많이 증가했고, 이 추세가 2024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가발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북한으로 나타났다.[9] 북한을 제외하고 중국에 가발을 수출한 국가의 가발 수출액 총액이 북한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해당 매체는 '중국 가발 수입 시장을 북한이 석권했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면서 미국 재무부는 '가발과 관련된 수입과 관련된 위반에 대해 100만달러가량의 벌금을 물렸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10] 이러한 모니터링 때문인지, 2024년 1월 이후 해당 제품의 수출과

[그림 3] 북한의 대중 가발, 가수염 수출액과 수입액

(단위: 만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접속일: 2025. 1. 21).

9) 『SPN』, 「북한, 전 세계 대중국 가발 수출 압도적 1위…"중국 가발 수입 시장 석권"」, 2024. 11. 23.
10) 『뉴스1』, 「북한산 가발 막아라…미 재무부 "대북 제재 적극 집행 중"」, 2024. 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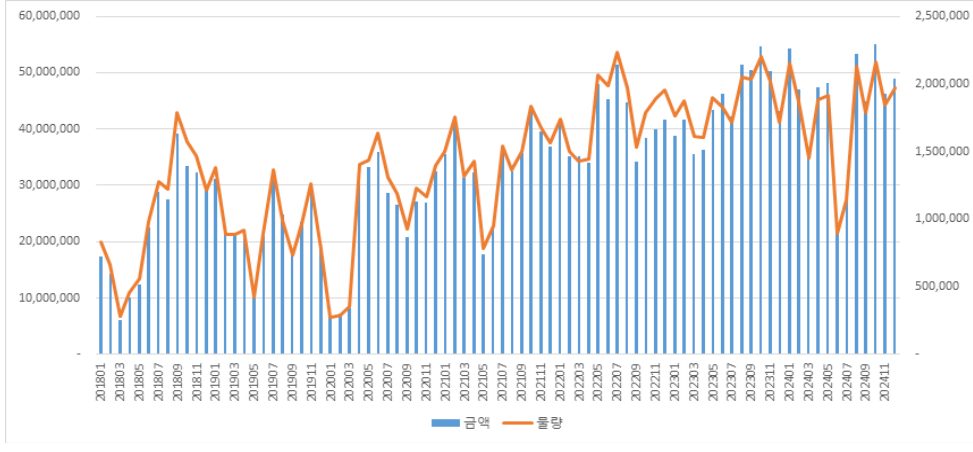
수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의 최대 수출품으로 떠오른 '가발, 가수염'의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될지 혹은 줄어들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북제재와는 무관한 광물인 '텅스텐광과 그 정광(HS 2611)'과 '몰디브덴광과 그 정광(HS 2613)'이 2024년 북한의 대중국 2위, 6위 수출 상품으로 확인되었다. 텅스텐광은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상위 5위 품목이 아니었으나 2022년에 수출 비중 23.1%로 1위를, 2023년에는 8.9%로 3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몰리브덴광도 유사하게 국경 봉쇄 해제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되고 있다. 석탄과 철광석 등 대북제재가 금지한 광물을 대체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해당 제품의 수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3위 수출 품목은 '전기 에너지(HS 2716)'로 나타났다. [그림 4]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북한의 대중 전기 에너지 월별 수출액(USD)과 수출 물량(kWh)의 추세를 보여준다. 전기 에너지는 트럭이나 철도가 아닌 전선을 통해 거래되므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기간에도 거래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2020년에는 전기 에너지 수출이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며 수출 1위 상품이 되기도 하였다. 2020년 이후 북한의 대중 전기 에너지 수출 물량과 금액이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전기 에너지는 압록강에 위치한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화 획득을 위해 수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4] 북한의 대중 전기 에너지 수출 금액과 물량: 2018년 1월~2024년 12월

(단위: USD, k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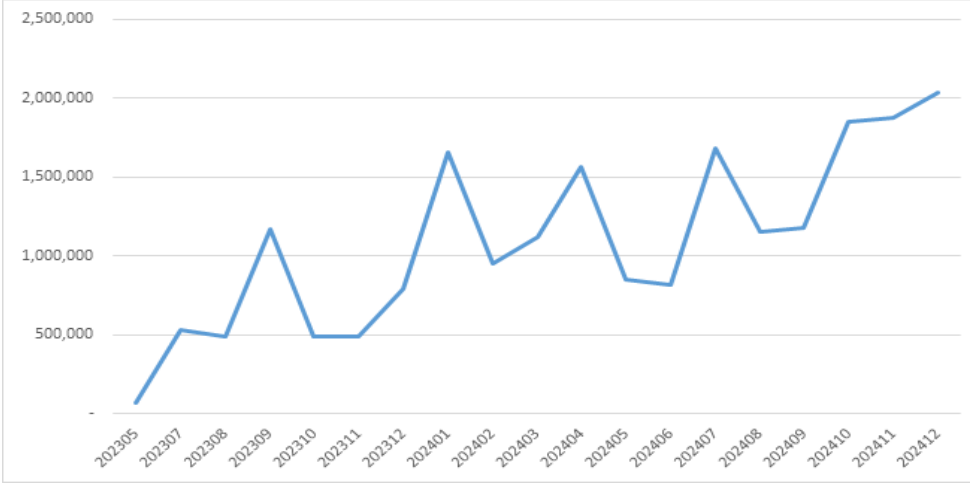
주: 물량은 기본축(좌측)을, 금액은 보조축(우변)으로 제시함.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접속일: 2025. 1. 21).

북한의 대중국 수출 4위 상품은 '합금철(HS 7202)'로, 수출액은 2,087만달러, 비중은 6.0%를 기록했다. 합금철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대상 품목임에도 세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출되고 있다. 2018년 이후 2020년(수출액 1,073만달러)을 제외하고 합금철의 대중 수출액은 연간 2,600만달러를 넘었다. 그러나 육로 국경이 봉쇄된 2021년과 2022년에도 연간 약 2,700만달러를 기록하던 합금철 수출액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6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HS 9108)'가 2024년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으로 떠올랐다. 해당 품목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가발, 가수염'의 수출액을 넘어서는 최대 수출 상품이었으나 코로나19 국경 봉쇄를 거치며 2020~23년 기간동안 수출이 상당히 감소한 바 있다. 2024년 수출액은 1,628만달러로, 2019년의 4,919만달러의 33% 수준에 그쳤으나, 2023년에 비하면 4배가량으로 크게 성장한 것이다. 해당 상품은 '가발, 가수염'과 같이 중국으로부터 재료를 수입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반제품 혹은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전형적인 임가공 상품이다. 해당 상품의 원재료인 시계부품(HS 9114)의 수입이 2023년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증가하고 있어(그림 5 참고) 2025년에도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북한의 대중 시계부품 수입 추세: 2023년 5월~2024년 12월

(단위: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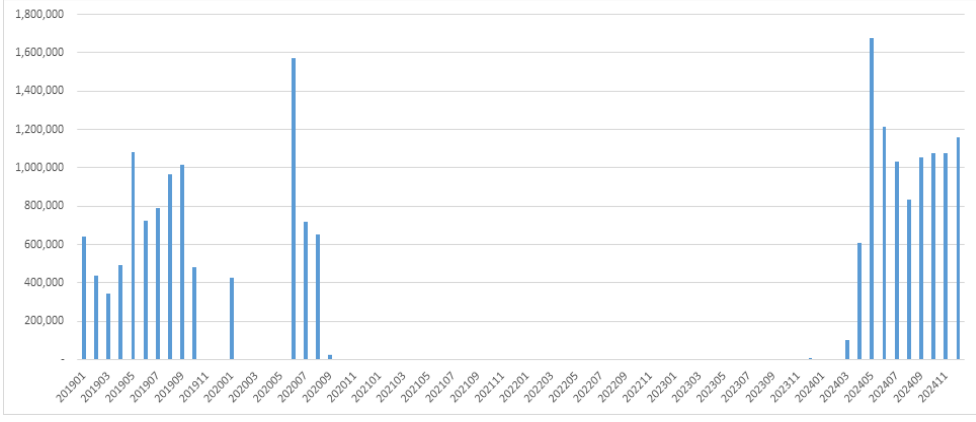
주: 물량은 기본축(좌측)을, 금액은 보조축(우변)으로 제시함.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접속일: 2025. 1. 21).

'간소화된 통관절차 중 저가제품(HS 9804)'의 수출은 2024년에 984만달러로 코로나19 국경 봉쇄 기간인 2021년 1만달러, 2022년 6천달러, 2023년 2만달러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해당 상품은 대규모 무역이 아닌 인적 왕래 중 세관에 신고하는 저가제품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북 간 인적 왕래의 대리 지표로 간주할 수 있다. 2024년의 수출액이 2019년의 수치보다 41%나 많은 것으로 보아 2024년에 중·북 간의 인적 교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6]은 해당 품목의 월별 수출액의 추세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2020년 4분기 이후 미미한 수준에 머물던 해당 상품의 월별 수출액이 2024년 2분기 이후 2019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북한과 중국의 인적 왕래가 활발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소개한 주요 대중 수출품 외에도 대북제재 대상 품목인 '생사(HS 5002)', '견웨이스트(HS 5003)'의 수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다. 그 외에도 '낚시용품(HS 9507)', '축제용품(HS 9505)', '전시용 기구와 모형(HS 9023)', '인조꽃(HS 6702)', '트렁크, 케이스(HS 4202)', '바구니 세공물(HS 4602)' 등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한 임가공 상품의 수출이 2024년에 증가하였다. 이는 북한 당국이 외화 획득을 위해 '가발, 가수염',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 외에도 임가공 수출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간소화된 통관절차 품목의 월별 수출액: 2019년 1월~2024년 12월

(단위: USD)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접속일: 2025. 1. 21).

나. 북한의 대중국 수입품

2024년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은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구분하면 산업 생산용 중간재, 북한 주민이 실생활에 사용하는 소비재로 구분할 수 있고, 소비재는 다시 식료품과 기타 소비재로 나눌 수 있다.

2024년에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플라스틱 제품(HS 39)'이다. HS code 4단위로 세분하면 순위가 뒤로 밀리지만, 제품의 특성상 HS code 2단위로 통칭하였다. '플라스틱 제품'의 2024년 수입액은 2억 3,132만달러로 전년 대비 111%, 2019년 대비 85%로 나타났다. [그림 7]은 2017년 이후 플라스틱 제품을 일차제품(HS code 3901~3914)과 가공제품(HS code 3915~3926)으로 구분하여 연별 수입액의 추세를 제시한다. 코로나19 이후 회복기인 2023년 이후 산업활동의 필수 중간재인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2018~19년)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북한 산업 생산이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일차제품보다 가공제품의 수입 비중이 높으며, 이러한 추세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생산의 국산화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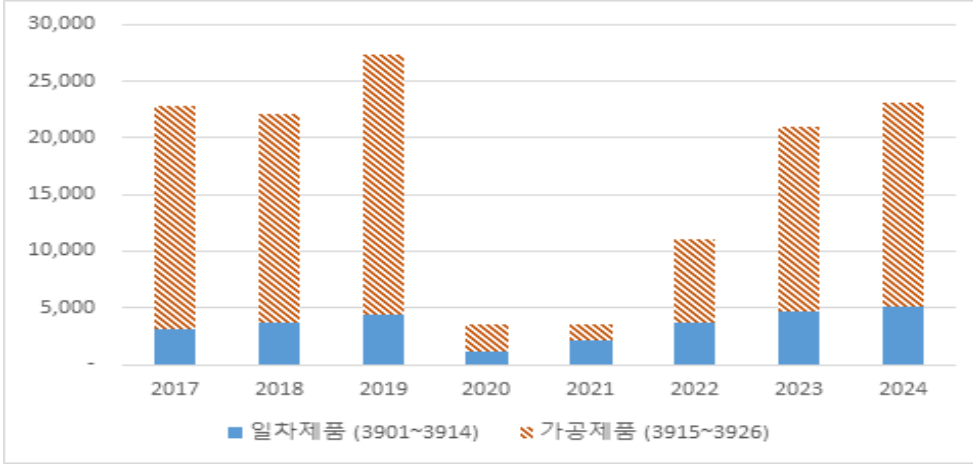
〈표 2〉 2024년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입 상품

순위	HS code	품목	2024년 수입액(비중)	2023년 대비 2024년 수입액 비율	2019년 대비 2024년 수입액 비율
1	39	플라스틱 제품	2억 3,132만달러(12.6%)	111%	85%
2	6703	사람 머리카락	1억 6,890만달러(9.2%)	106%	771%
3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9,905만달러(5.4%)	123%	59%
4	1507	대두유	9,674만달러(5.3%)	107%	79%
5	9403	가구와 부분품	5,135만달러(2.8%)	166%	129%
6	6006	메리야스 편물, 뜨개질 편물	4,459만달러(2.4%)	68%	81%
7	6907	타일	4,048만달러(2.2%)	100%	96%
8	4011	고무타이어	3,545만달러(1.9%)	86%	90%
9	3004	의약품	2,420만달러(1.3%)	41%	55%
10	0207	가금류	2,246만달러(1.2%)	275%	274%
11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106만달러(1.1%)	112%	71%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접속일: 2025. 1. 21).

[그림 7] 북한의 플라스틱 제품(HS 39)의 가공 단계별 수입액

(단위: 만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접속일: 2025. 1. 21).

HS code 4단위로 상품 분류를 할 경우 2024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가발 재료로 활용되는 '사람 머리카락(HS 6703)'이다. 2024년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9.2%나 차지하며, 작년 수입액 대비 106%로 국경 봉쇄 해제 이후 수입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수출 상품인 '가발, 가수염(HS 6704)'의 재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수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HS 5407)'과 '메리야스 편물, 뜨개질 편물(HS 6006)'은 대중국 주요 수입품 중 의류 산업 중간재로 분류되는 품목이다. 해당 상품 역시 임가공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라는 점에서 '사람 머리카락'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가발, 가수염'은 대북제재와 무관한 반면, 의류는 거래 금지 품목이라는 차이가 있다.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HS 5407)'과 '메리야스 편물, 뜨개질 편물(HS 6006)'을 포함하여 의류제품 생산의 중간재로 간주되는 방직용 섬유와 섬유제품(HS code 50~63)의 연간 수입액의 추세는 [그림 8]에 제시하였다. 대북제재가 완전히 영향을 미치지 못하던 2016~17년까지만 해도 해당 상품군의 수입액은 7.2~7.7억달러에 달했으나, 제재로 임가공 의류 수출이 금지되자 2018~19년에는 해당 상품의 수입이 5.3~6.5억달러로 감소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육상 국경이 봉쇄 상태였던 2020~22년에는 0.2~1.4억달러에 그쳐 의류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회복기인 2023년과 2024년에는 3.7~4.2억달러어치 수입하여 최근 북한의 의류 산업은 코로나19 사태의 침체는 벗어났으나 대북제재 이전은 물론 코로나19 이전 상황인

[그림 8] 북한의 대중 편직물 수입액

(단위: 백만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5. 1. 21).

2018~19년의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주요 대중 수입품 중 식료품 수입에 대해 살펴보자. 대표적인 식료품인 '대두유(HS 1507)',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HS 2922)-조미료인 글루탐산나트륨'의 수입액은 여전히 높아 〈표 2〉에 포함되어 있으나 주요 수입품으로 분류되던 설탕(HS 1701), 팜유(HS 1511)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2024년 대두유의 수입액은 2023년 대비 107%, 조미료의 수입액은 112%로 일부 증가했으나, 팜유의 경우 2023년 대비 5%, 설탕은 2023년 대비 20% 수준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육류와 과일의 수입은 2024년에 크게 늘었다. 냉동 쇠고기(HS 0202), 양과 염소고기(HS 0204), 가금류(HS 0207)를 포함한 육류(HS 02)의 2024년 수입액은 2023년 대비 2.9배, 2019년 대비 2.7배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도 많이 증가했고, 어류(HS 03)의 2024년 수입액은 2023년 대비해 2.3배, 2019년 대비 3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상품이라 볼 수 있는 가공육류(HS 16)의 수입 역시 2023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한 견과류와 과일(HS 08)의 2024년도 수입 역시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육류를 제외한 상품들의 2024년도 수입액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북한의 식료품 소비수준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기에서 북한 일반 주민들이 널리 사용하는 일반 식료품인 대두유, 설탕, 팜유의 수입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사치 식료품이라 할 수 있는 육류와 과일의 수입이 2024년 들어 많이 증가한 것을 통해 북한 식생활에도 빈익빈 부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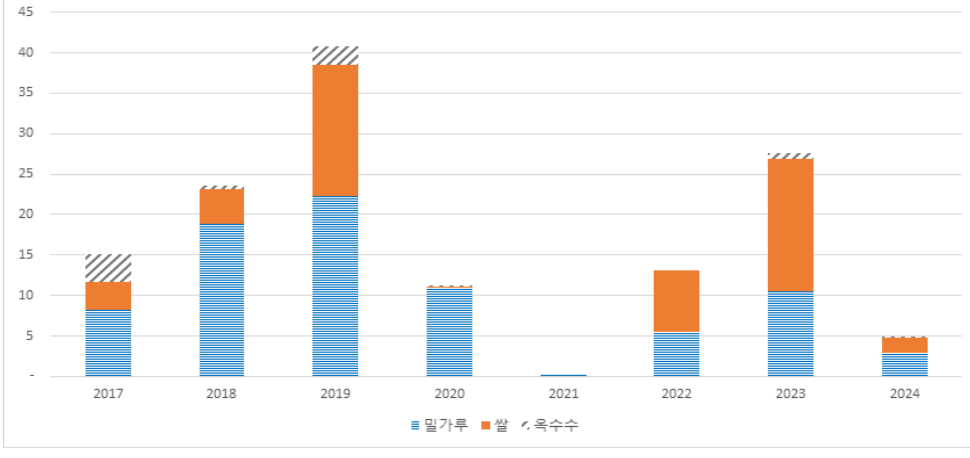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주요 식량 곡물이라 할 수 있는 쌀(HS 1106), 옥수수(HS 1005), 밀가루(HS 1101)의 수입은 2024년에 크게 줄었다. [그림 9]는 2017년 이후 북한의 밀가루, 쌀, 옥수수의 대중국 수입 물량의 추이를 보여준다. 2019년에는 40.8만톤에 이르렀던 식량 수입이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로 11.2만톤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0.1만톤으로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이후 2022년 13만톤, 2023년에는 27.6만톤으로 증가추세로 반전되었으나 2024년에는 4.9만톤으로 심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2023년 북한의 식량 생산이 482만톤으로 2022년에 비해 31만톤이나 늘어나 2024년 식량 사정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쌀, 밀가루 등 곡물과 설탕 등 필수 식료품을 중국이 아닌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2024년에는 러·북 간에 군사적, 경제적 밀착이 강화되었고, 북한은 러시아에 군수물자와 병력을 지원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과 석유제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량은 주로 밀가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두유, 설탕 등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이 러시아로부터 도입되었다면 중국산 식료품이 대체되었을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산 밀가루가 주민들에게 배급되었다는 소식[11]이 있으며, 러시아의 농업 기업이 북한에 밀가루, 식물성 기름, 곡물 등을 수출하는 것을 북한 당국과 협의했다는 보도도 존재한다.[12] 따라서

[그림 9] 북한의 주요 식량 수입 물량

(단위: 만톤)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접속일: 2025. 1. 21).

11) 『rfa』, 「[지금 북한은] 군수 관련 공장에 러시아 밀가루 '통큰' 배급」, 2024. 11. 21.
12) 『SPN』, 「러 농업기업 "북에 밀·곡물 수출 협의"」, 2024. 8.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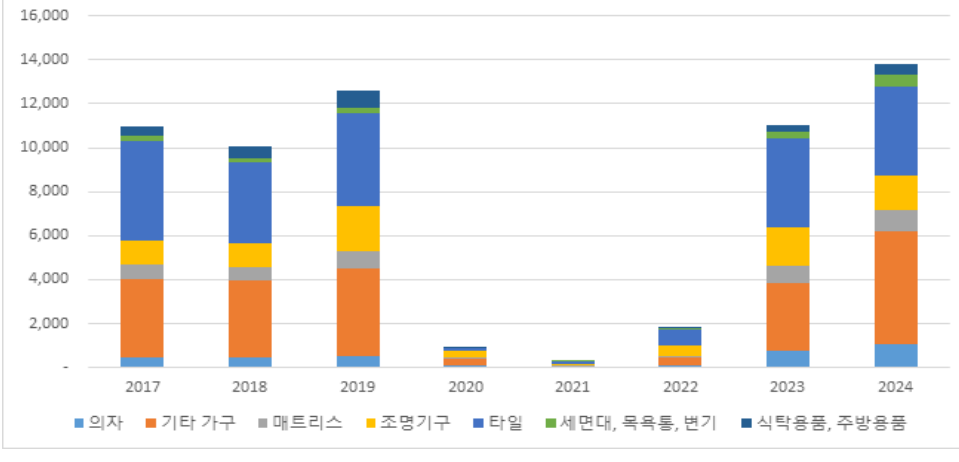
러시아산 식량과 식료품이 북한에 얼마나 수출되었는지 역시 해당 제품의 대중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대북제재 이후 북한 당국이 강조한 산업 중 하나가 '건설업'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5년 동안 평양에 매년 1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고,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에 따라 농촌에도 살림집을 건설하고 있다.[13] 대북제재 이후 북한 당국이 건설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노동력과 시멘트, 철골 등 대부분의 건설업 투입재가 북한 내부에서 동원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내부 인테리어가 필요한데 이는 국산화되기 어려운 품목이 많아 여전히 외부에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국경 봉쇄가 해제되자 이와 관련된 품목들이 상당히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은 의자, 가구, 매트리스, 타일, 각종 용품 등 주택 내부 인테리어와 관련된 품목의 수입액 추세를 제시한다. 2023~24년 관련 품목들의 수입액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북한의 건설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회복 속도가 빠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고무타이어(HS 4011)와 의약품(HS 3004)의 2024년 대중 수입액은 예년에 이어 여전히 상위권에 있으나 그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타이어는 국경 봉쇄 기간에 국내 및 해외 이동이 제한되면서 수요가 크게 줄어들며 수입규모가 크게 줄었다. 2022년 하반기

[그림 10] 북한의 주택 내부 인테리어 품목 수입액

(단위: 만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접속일: 2025. 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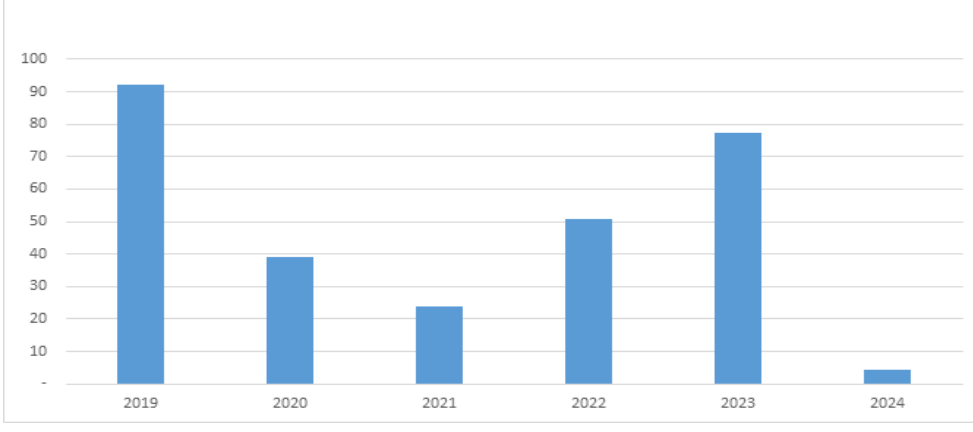
13) 『뉴스1』, 「북한, 농촌 살림집 건설 2년 6개월…"전국에 걸쳐 190개 지역 완공"」, 2024. 6. 5.

육상 운송을 통한 대중 무역이 재개되고 지역 간 이동 수요가 늘어나며 2022년 하반기와 2023년에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고무타이어 수입이 감소했는데, 이는 2022~23년 수입이 충분하여 수요가 충족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도 고무타이어와 유사하게 2022~23년 기간에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수입액이 이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 2023년에 국경 봉쇄 동안 부족했던 의약품 수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2024년에는 수요 감소와 재고가 일부 남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요 대중 수입품이었던 '담배류(HS 24)'가 2024년에는 수입이 크게 줄었다. [그림 11]은 2019년 이후 2024년까지 북한의 대중 담배 수입액을 제시한다. 2024년 북한의 담배 수입액은 448만달러로 나타났다. 육로 국경 봉쇄로 수입이 극단적으로 줄었던 2021년에도 2,380만달러를 수입했던 전례에 비하면 2024년의 수치는 담배 수입의 붕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담배는 단순 기호품에 그치지 않고 뇌물의 주요 수단으로, 일종의 화폐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담배는 오랫동안 대중 수입 상위 품목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2024년 담배 수입 급감은 북한 당국의 '지방발전 20×10 정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수행된 성천군에 처음 착공된 공장이 담배 공장이며, 과거에는 성천군의 담뱃잎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담배의 원료로 사용되었으나 담배나 식료품과 같이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는 국산화 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북한의 대중 담배류 수입액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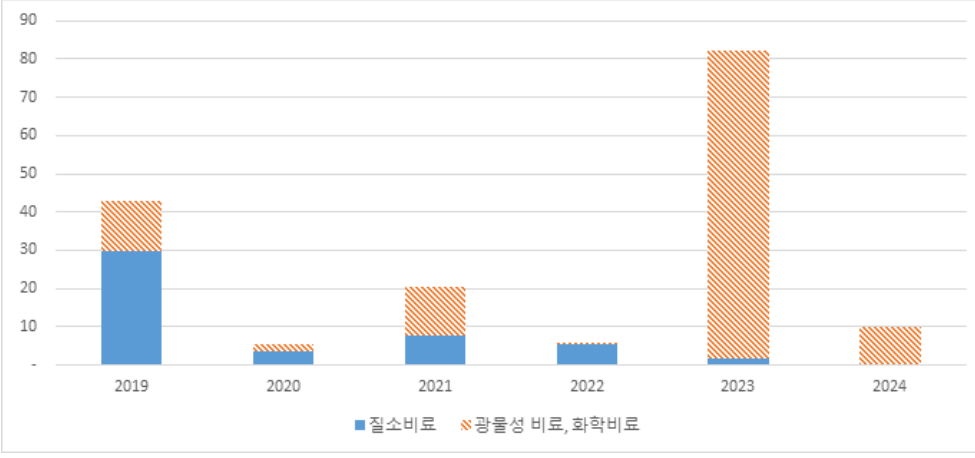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접속일: 2025. 1. 21).

2024년 눈에 띄게 수입이 감소한 또 다른 품목은 '비료(HS 31)'이다. [그림 12]는 북한의 대중국 비료 수입액을 보여주는데, 2024년 북한의 비료 수입이 2023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2023년에 북한이 많은 양의 비료를 수입(8,223만달러)하여 비축한 덕분에 2024년에 수입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2023년 이후 최근까지 북한이 주로 수입한 비료는 질소비료가 아닌 광물성, 화학 비료였다. 북한 당국은 2024년 12월 말 개최된 당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 중 질소비료생산이 계획 대비 103% 이루어졌다고 선전한 바 있다.[14] 이 수치를 신뢰한다면 북한의 질소비료 생산이 담배나 다른 식료품처럼 국산화를 통한 수입 대체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비료 밀수와 러시아로부터의 공급이다. 중국 세관을 통한 공식 수입은 크게 줄었으나 밀수 등 비공식 무역을 통해 비료가 지속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도 존재한다.[15] 게다가 세계 최대의 비료 수출국인 러시아와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며 중국이 아닌 러시아로부터 비료를 도입할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다.

이처럼 2025년 북한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비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2025년 북한의 농업 생산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비료 생산 동향은 물론 2025년 상반기 비료 수입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림 12]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액

(단위: 백만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접속일: 2025. 1. 21).

14) 『통일뉴스』, 「북, 연말 당전원회의(12.23~27)서 '최강경 대미대응전략' 천명」, 2024. 12. 29.
15) 『아시아프레스』, 「<내부 인터뷰>북한 국가 밀수의 현황을 물었다 국경 밀무역 급격히 확대, 거래품 중 유엔 제재 품목 대거 포함」, 2024. 5. 31.

Ⅲ. 러시아-북한 경제협력

2024년 들어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관계는 큰 진전이 있었다. 3월에는 러시아가 UN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대북제재 모니터링은 무력화되었다. 6월에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적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 경제, 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예고하였다. 이러한 러·북 관계 밀착은 2023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일련의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2023년 7월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하였고, 9월에는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 정상회담을 하였다. 이후 러·북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논의되었다. 이러한 공식적인 만남과 회담 중에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제공했다는 인공위성 사진이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통일연구원의 데이터베이스[16]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 단 1차례에 불과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군수공장 방문 횟수가 쇼이구 국방장관이 방북한 2023년 7월 이후 2024년 연말까지 14회로 증가하였다. 군수물자 지원을 넘어서 2024년 10월에는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되었으며, 최근에는 파병규모가 약 1만 2천명에 이르며 사상자는 약 3천명인 것으로 발표되었다.[17]

북한의 군사분야의 대러 지원의 반대급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중에서도 경제적인 지원이 어떠한 것이며 어느 규모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가장 대표적인 품목은 석유제품일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석유제품의 밀수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영국의 연구단체인 오픈소스센터(Open Source Centre)의 보고서[18]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러시아는 북한에 100만배럴 이상의 석유제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인공위성을 통해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려진 기간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최소'의 수치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UN 안보리 대북제재가 설정한 50만배럴의 한도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서 2024년 북한의 대중 무역에서 특징적인 것은 쌀 등 식량과 식량 생산의 필수 중간재라 할 수 있는 비료의 수입 급감, 설탕 등 필수 식료품 소비재의 수입 감소라고 할 수 있다.

16) 통일연구원,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분석 DB(https://www.kinu.or.kr/nksdb/, 검색일: 2025. 1. 10).
17) 『KBS』, 「"러시아 파병 북한군 사상자 3천 명…생포 전 자폭 강요도"」, 2025. 1. 14.
18) James Byrne, Joseph Byrne, and Alessio Armenzoni, "Refined Tastes: Russian Oil Deliveries to Pyongyang Breach the Million Barrel Mark", Open Source Centre, November 22, 2024.

해당 품목은 대러 수입을 통해 대중 무역을 대체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러시아산 밀가루가 보위부, 안전부 등 정권 보위기관과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배급되었다는 보도[19]가 있었으며, 러시아의 농업 기업이 북한에 대두유로 대표되는 식물성 기름 등 식료품을 수출하기로 하였다는 소식[20]도 전해진다.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가 공식적인 무역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러·북 무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러시아 고위 관료의 입을 통해 2023년 러·북 무역액이 전년 대비 9배 증가한 3,440만달러라고 보도되었다.[21] 2024년 러·북 교역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수치는 존재하지 않으나 러·북 간 물자 이동에 대한 정황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북한군의 파병 등 러·북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2024년 러·북 간 무역규모는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북한과 러시아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했으며,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제재로 석탄 수출이 막힌 북한이 러시아라는 우회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22]이 있다.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자 북한은 러시아를 활용하여 제재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외화를 벌 수 있는 수단으로 관광에 집중해 왔다. 국경 봉쇄 해제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받아들인 외국인 관광객은 러시아 관광객이었다.[23] 그러나 러시아 관광객의 규모는 북한 당국의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2024년 2월 북한 관광이 재개된 이후 연말까지 방북한 러시아 관광객은 약 1천 500명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24] 이상근(2024)은 2019년 북한에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약 26~30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하였다. 북한이 관광을 통해 의미 있는 액수의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아닌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인의 북한 관광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최근 러·북 밀착을 불편하게 보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 분야의 협력도 합의하였다. 현재 물자 교역은 나진-하산 사이의 철도를 통해, 인력은 항공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를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두만강 대교를 건설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한다.[25] 2015년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두만강 대교 건설이 중단되었으나 러·북 밀착이 심화되면서 상황이

19) 『rfa』, 「북, 러시아산 밀가루 일부 주민들에 배급」, 2024. 11. 15.
20) 『SPN』, 「러 농업기업 "북에 밀·곡물 수출 협의"」, 2024. 8. 23.
21) 『아시아투데이』, 「푸틴 보좌관 "2023년 러-북 무역규모 9배 증가"」, 2024. 6. 18.
22) 『데일리NK』, 「北 무역업자들, 러시아 통한 대중(對中) 석탄 수출에 '적극적'」, 2024. 12. 26.
23) 『조선일보』, 「소련 시절 궁금해서?...러시아서 '北 관광' 인기」, 2024. 4. 26.
24) 『연합뉴스』, 「지난해 방북 러시아 관광객 1천500명…"기대 이하 평가"」, 2025. 1. 14.
25) 『rfa』, 「북러, 제재맞서 인력송출 등 전방위 협력 시사」, 2024. 6. 19.

변했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운송이 필요하다는 양국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협력의 다른 분야는 북한 노동자 파견이다. 이전부터 노동력 부족 상태였던 러시아는 장기화된 전쟁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해졌다. 벌목공과 일부 공장에 한정되었던 북한의 파견 노동자 수요가 더 많은 산업과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군인에 이어 수만 명 대의 노동자를 러시아에 파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소식[26]이 있었다. 또 다른 보도[27]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러시아의 특정 지역의 실업자 1인당 일자리는 1인당 4.6개였는데, 이는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해당 지역의 기업들은 북한의 노동자 고용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안제노(2024)는 2024년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제14~18조는 주민 관리와 통제에 관련된 양국 간 사법제도 교류 및 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파견 노동자의 탈북을 차단하는 등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을 준비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적 협력은 단순한 물자 교류를 넘어서 밀수, 인프라 협력, 노동자 파견 등 대북제재가 금지한 분야에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북한은 러시아를 중국 외에 식량과 에너지, 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파트너로 구축하고자 한다.

Ⅳ. 2024년 북한의 대외경제 평가와 2025년 전망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국가 통제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사상을 통제하고 있으며, 김일성에게만 부여된 '수령'이라는 호칭을 김정은에게도 사용하는 등 지도자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양곡판매소를 운영하여 식량 유통을 국가가 통제하려는 시도 등 전 영역에 걸쳐 국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인된다.

국가 통제 강화 기조는 대외 경제 부분에서도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 당국은 무역 전반에 걸쳐 국가가 개입하거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역법을 개정하였

26) 『SBS』, 「"북한 노동자 수만 명 러시아 파견 동향 포착"」, 2024. 10. 24.
27) 『rfa』, 「인력난 러 지방정부, 북 노동자 채용 기업 수요 조사」, 2024. 12. 12.

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무역 재개를 대비하여 외화 유출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실제로 국경 봉쇄가 해제되며 육로 운송을 통한 무역이 재개되고 밀수 등 비공식 무역이 다시 성행하자 공식 무역뿐 아니라 밀수 등 대외무역 전반에 걸쳐 무역의 전반을 국가가 관장하고 있다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국가 통제의 모습이 확연하게 관찰된다.

2024년 북한의 대중 교역은 전반적으로 2023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무역규모는 일부 감소했으나, 수출품은 '비제재 광물', '비제재 임가공 상품' 등으로 2023년의 수출품 리스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북한의 산업 중간재 수입은 이전과 유사하게 지속되고 있었으나, 식량이나 식료품 등 북한 주민들의 소비재는 품목에 따라 수입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다.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북한 내부에서 생산 가능하거나 러시아산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2024년 북한의 대외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었다. 2024년 러·북 무역규모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였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2023년 이후 크게 개선된 러·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2024년 양국의 교역액이 수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수물자 제공과 병력 파병의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석유제품과 식량 등의 물자를 제공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6월에 체결된 러·북 신조약 이후 군사적인 협력 외에도 경제, 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예고되었으며, 이후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부문별로 다방면 협력 사업이 구체적으로 협의되었다. 이외에도 북한은 해외 노동자를 파견하거나 러시아인 관광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5년 1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러-우 전쟁의 향방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이른 시일 안에 전쟁을 종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종전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NATO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종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해당 전쟁에 약 1만명 이상의 군인을 파병한 북한으로서는 종전 여부가 북한경제 등 내부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조기에 러-우 전쟁이 종결된다고 가정할 경우,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역시 북한의 대외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쟁 이후 경제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서구 국가들과 관계를 회복하며 교역을 늘리고 투자를 유치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러·북 밀착 이후 소원한 것으로 보이는 중·북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관찰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적 관점에서 러시아는 중국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견해인데, 최근의 러·북 관계와 중·북 관계의 상호 관계가 2025년에 어떻게 진행될지 역시 북한의 대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다시금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실무진으로 활약한 알렉스 웡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관이 다시 외교라인에 발탁되면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실제로 국정원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대표적인 외교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8)]

결론적으로 2025년 북한의 대외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북한 당국의 외화 보유 사정, 러-우 전쟁의 종전 여부, 종전 이후 러·북 관계와 중·북 관계의 변화,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등이 있으며, 어느 하나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8) 『JTBC』, 「국정원 "트럼프, 김정은과 핵동결 '스몰딜' 대화 가능성"」, 2024. 01. 13.

참고문헌

〈국내문헌〉

『뉴스1』, 「북한산 가발 막아라…미 재무부 "대북 제재 적극 집행 중"」, 2024. 8. 8.

『데일리NK』, 「[지방발전 정책 그 후②] 지방 무역 늘리면서 통제는 더 세게」, 2024. 6. 25.

_____, 「北, 대북제재에도 아랑곳 않고 "광물 수출 확대하라" 지시」, 2024. 8. 5.

_____, 「北 무역업자들, 러시아 통한 대중(對中) 석탄 수출에 '적극적'」, 2024. 12. 26.

『아시아투데이』, 「푸틴 보좌관 "2023년 러-북 무역규모 9배 증가"」, 2024. 6. 18.

『아시아프레스』, 「<북한내부> 무역회사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 (2) '개인 소유물처럼 변질'됐다며 부패 비판 무역회사와 시장을 철저히 차단」, 2024. 3. 19.

_____, 「<내부 인터뷰>북한 국가 밀수의 현황을 물었다 국경 밀무역 급격히 확대, 거래품중 유엔 제재 품목 대거 포함」, 2024. 5. 31.

안제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인권회의 의미와 과제」, 『이슈브리프 570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 6. 26.

『연합뉴스』, 「'김정은표 무역자율화→중앙통제' 유턴…자력갱생 국가 주도로」, 2022. 2. 8.

_____, 「지난해 방북 러시아 관광객 1천500명…"기대 이하 평가"」, 2025. 1. 14.

이상근, 「북한 관광산업 육성 정책 추진의 의미와 한계」, 『이슈브리프 578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 7. 25.

『뉴스1』, 「북한, 농촌 살림집 건설 2년 6개월…"전국에 걸쳐 190개 지역 완공"」, 2024. 6. 5.

『조선일보』, 「소련 시절 궁금해서?...러시아서 '北 관광' 인기」, 2024. 4. 26.

『통일뉴스』, 「북, 연말 당전원회의(12.23~27)서 '최강경 대미대응전략' 천명」, 2024. 12. 29.

James Byrne, Joseph Byrne, and Alessio Armenzoni, "Refined Tastes: Russian Oil Deliveries to Pyongyang Breach the Million Barrel Mark", Open Source Centre, November 22, 2024.

『JTBC』, 「국정원 "트럼프, 김정은과 핵동결 '스몰딜' 대화 가능성"」, 2024. 01. 13.

『KBS』, 「"러시아 파병 북한군 사상자 3천 명…생포 전 자폭 강요도"」, 2025. 1. 14.

『rfa』, 「북 '지방발전 20x10' 첫번째 목표는 담배·식품 공장 건설」, 2024. 3. 6.
_____, 「북러, 제재맞서 인력송출 등 전방위 협력 시사」, 2024. 6. 19.
_____, 「북, 중국 내 노동자에 "외화 갖고 귀국하라"」, 2024. 10. 15.
_____, 「북, 러시아산 밀가루 일부 주민들에 배급」, 2024. 11. 15.
_____, 「북중 국경무역 제재 피하려 '밀수'로」, 2024. 11. 18.
_____, 「[지금 북한은] 군수 관련 공장에 러시아 밀가루 '통큰' 배급」, 2024. 11. 21.
_____, 「인력난 러 지방정부, 북 노동자 채용 기업 수요 조사」, 2024. 12. 12.
『SBS』, 「"북한 노동자 수만 명 러시아 파견 동향 포착"」, 2024. 10. 24.
『SPN』, 「러 농업기업 "북에 밀·곡물 수출 협의"」, 2024. 8. 23.
_____, 「북한, 전 세계 대중국 가발 수출 압도적 1위..."중국 가발 수입 시장 석권"」, 2024. 11. 23.

〈웹사이트〉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접속일: 2025. 1. 21).
통일연구원,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분석 DB(https://www.kinu.or.kr/nksdb/, 접속일: 2025. 1. 10).